

광주 13/25°C 목포 14/23°C 여수 17/21°C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 光州日報

kwangju.co.kr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햇살론” 업무개시  
동양지축은행 226-0180  
단기 4343년 (음력 8월 30일)

제18795호 1판

2010년 10월 7일 목요일

## 광주 도시확장 더 안한다

주거·상업용지 조성 억제…성장보다 삶의 질 우선

### ‘2025 도시계획’ 중간보고

광주시가 오는 2025년까지 주거 및 상업용지의 추가 조성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택지나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한 도시 확장을 멈추고 도시 내부를 우선 개발하면서 무분별한 성장에 따른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의미다. 향후 15년간 도시 운영 기조도 과거 고도성장·승용차 중심·양적 개발에서 균형발전·대중교통중심·삶의 질 중심으로 변형된다.〈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6일 “지난 2004년 수립된 ‘2020 광주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전면 수정한 ‘2025 광주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7일 갖는다”고 밝혔다. 광주도시기본계획은 광주지를 범위로 하는 최상위 수준의 계획으로,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하위 계획의 변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5 광주도시기본계획 중간보고 안에 따르면, 문화창조발전도시, 첨단·광산업 허브도시, 민주인권문화 도시, 국제교류중심도시, 저탄소 녹

색 청정도시를 5대 목표로 삼고, 2025년 1인당 GRDP(지역 내 총생산) 4만 달러, 세계도시 삶의 질 평가 100위 내 진입, 세계도시경쟁력 순위 200위 등 정책지표를 제시했다.

2025년 추계인구는 2020년과 같은 180만명으로 설정해 사실상 인구감소를 대비했으며, 총 가구수는 핵가족화의 심화로 지난해 51만3000가구에서 21만 가구가 늘어난 72만3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이 계속되면서 주택보급률은 119.4%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의 공간구조는 향후 혁신도시, 공동국가산업단지, R&D특구 등의 사업으로 나주·장성·화순·영광·함평·답양 등 전남 각 시·군과의 경제적인 통합이 가속화되고, 국도 13호선을 따라 첨단·하남·진곡·평동·혁신도시 등이 연계되면서 첨단산업밸리죽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도심 내는 총장·금남로 거점(역사·문화 중심), 삼무거점(업무·행정 중심), 송정거점(첨단제조·레저 중

심) 등 3개의 거점과 무진로축, 영산강 신성강축, 철단산업 물류축 등 3개 개발축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에 따른 도시공간구조는 기준도심과 상무도심 등 2개 도심, 송정과 첨단 등 2개 부도심, 백운·광천·금호·용봉·하남·본촌·수완·효천·소태 등 9개의 지역 중심으로 구조될 예정이다. 서창과 각화는 특화역으로 지정돼 장래 거점개발이 시도된다. 뛰어난 자연자원인 영산강 수변축, 황룡강·광주천·풍영정천 수변축, 무등산을 중심으로 한 외곽 녹지축과 도심 내 작은 산을 엮은 도심 내 환상 녹지축 등을 보전축으로 설정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1960년 이후 50년 동안 성장에만 충실하면서 그로 인해 빚어지는 부작용을 감안하지 못했는데 2025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를 대폭 보완했다”며 “앞으로 산 부지가 격려되면서 내세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도시 내 미개발지가 우선 개발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민주 새 지도부 5·18 묘지 참배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최고 위원 등 신임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 당직자들이 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묘역에 들어서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손학규 민주당 대표 단독인터뷰 ▶4면

## 특급호텔이냐 특혜호텔이냐

광주시, 부지 저가매각·‘공중통로’ 개설 28억 부담

“민간투자 유인 좋지만 혈세 투입 과도 지원” 지적

시유지 저가 매각, 아파트 부지 제공에 이어 경대중컨센서터(이하 DJ센터)와의 ‘공중 통로(Sky Walk)’ 개설 지원에 이르기까지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들어서는 특급호텔을 둘러싼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특급호텔 사업자와 ‘최대한 편의 제공’이라는 추상적인 문구로 투자협약서를 체결한 뒤 시 재정으로 직·간접적인 지원을 계속해 논란이 확산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급호텔 사업자가 사업비로 사용했다고 밝힌 783억 원의 내역, 용도변경 및 아파트 부지 매각을 통한 수익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달 말 완공 예정인 서구 치평동 특급호텔과 맞은편 DJ센터를 연결하는 공중통로를 설치하기로 하고, 제2차 추경예산안에 설계비 명목으로 1

억6000여만원을 반영했다. 총 연장 130m에 달하는 이 통로를 만드는데 모두 40억원이 소요된다. 광주시는 이 가운데 70%(28억원)를 부담하기로 했다. 개인의 호텔 영업을 위한 시설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특급호텔 유치를 명분으로 호텔 및 아파트 부지 3만9633㎡ 가운데 15.4%를 차지하는 6108㎡의 시유지를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은 ㎡당 72만530원에 호텔 사업자에게 매각했으며, 호텔 부지뿐만 아니라 아파트 부지까지 ‘종 상향’을 통해 가치를 높여졌다. ▶2면으로 계속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내년 7월 발효

한국과 유럽연합(EU)이 6일 오전 (현지시각) 자유무역협정(FTA)을 공식 체결했다. 〈관련기사 8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차관은 이날 EU 의장국인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이사회 본부에서 한-EU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로써 한-EU FTA는 지난 2007년 5월 체결 협상을 시작한 지 3년5개월, 지난해 7월 극적인 협상 타결로 가서명을 한 지 1년 3개월만에 결실을 보

게 됐다.

EU는 유럽 27개국으로 형성된 세계 최대 시장으로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만 16조4000억 달러에 달했다. 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다.

한-EU FTA는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일 잠정 발효된다.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양측은 유럽 의회의 동의만 얻으면 FTA를 잠정 발효할 수 있다. /연합뉴스



www.hpdynastycc.co.kr

만인보 10000 LIVES  
‘2010년 광주 비엔날레’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

## 귀하를 위한 그림같은 골·프·장

친환경 나비고장 함평에 오시면 사계절 푸른 양잔디,

한폭의 수채화 같은 함평 다이너스티가

여러분의 삶에 여유로움과 잊지못할 추억을 드리겠습니다.



예약문의 080) 320-7700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